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9월 23일(화) 제 3177호

장수군, 특화지구 연계 농촌 재구조화 선도

농식품부정비시업선정100억투입 축산·융복합·마을보호지구연계 특산물유통·가공산업활성화 정주여건개선·농촌활력도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 사업 2차 공모에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억 원 (국비 50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 조화법에 따라, 전국 시군이 마련한 농 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서로 연계해 농촌공간 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 내용에는 지구별 기 반 시설 조성, 환경 관리, 생활 편의 시 설과 판매·주거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

올해 공모에는 전국 4개 시군이 참여 했으며, 횡성군(강원)과 장수군(전북) 이 2차 공모에서 선정됐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에서는 순창군 (전북)과 신안군(전남)이 선정돼,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에서 전국 4곳 중 2곳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9년까지 100억을 투입해 2개 이상의 농 촌특화지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사업계획도 <사진=전북자치도>

을 전북이 차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 화를 선도하게 됐다.

장수군은 계남면 일원에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 호지구 등 세 구역을 연계 조성한다. 축 산지구에는 교육·실습시설과 임대·이 전축산단지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

쟁력을 높이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레드푸드 직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특 산물 유통·가공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 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 정비와 쉼터·숙소를 조성해 주민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

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농촌공간재구 조화법 시행 이후 도와 시군이 함께 농 촌공간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장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경제 활 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토부, 새만금공항 항소 결정

1심판결불복,상급심판단 요청 조류충돌・환경훼손보완강조 전북도와 공동 대응 계획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 획을 취소하라는 소송 1심 판결에 불 복,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 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비롯해 새 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 지역의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은 구체 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 익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 단을 구할 계획이다"며 "향후 있을 항 소 과정에서 전북도 등 관계기관, 전문

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일부 시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상 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 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 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 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 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 다고 판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 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 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9 년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번 1심 판 결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장정철 기자

道,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 내년도 실질적 지원책 모색

금융지원·판로확대등정책점검 공급망다각화·첨단산업 육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변화하는 미 국의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해 개최됐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상황에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 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 로 확대, 현장소통 등 관세 대응 지원정 책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상황 ▲내년도 핵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급망 다각화와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내 년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자금 지원과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를 통한 판로 다각화 지원,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미래차 부 품 전환 및 대체부품 개발 등) 등 맞춤 형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달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 행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맞춤형 케어푸드 메카로"

남원서 미래농업 전북포럼 개최 산·학·연 전문가와 전략 모색

전북도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개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 바이옴 활용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도의 정책 비전을 제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발 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 로 진행된다.

먼저, 박지은 마크로젠 이사가 마이 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 활용 가능성 을 다룬다. 급성장하는 마이크로바이 옴 시장 동향과 유전자·마이크로바이 옴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식단 설계, 질병 예방 솔루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배민정 한국식품진흥원 기술혁신처 장은 케어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 랫폼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외 케 어푸드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혁 신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식품진흥원 의 생산·가공·포장 시설과 기술 지원 을 활용한 기업별 제품 개발 및 실증 결과를 공유한다.

정도건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전 북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발전 로드 맵을 공개한다. 전북이 확보한 대규모 미생물 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관련 시설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개사 육성, 연관 기업 40개사 확충, 일 자리 2,3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 북대학교병원, 전주대학교 등 산·학· 연·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케어푸 드 산업화 추진 방안과 지역 특성 연계 전략을 검토한다. /장정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춘석 방지법' 제정 촉구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필요 기존제도감시기능미흡"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 일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 거래내역 신고제)'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 제 제안 및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 평 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의 과제로 이춘석 방지법 제 정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 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 하는 시험대"라면서도 "이들은 민주당 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 혁 법안보다는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은 국 회의원・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의 보 유 주식 내역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실제 매매 과정에서의 이해충 돌·차명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 다.

또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국회 이

해충돌 심사제도도 유명무실해 실질적 인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거래 단위별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 거 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다" 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조사하는 보완 책을 입법화하는 편이 좋겠다"며 "제2 의 이춘석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만한 법안을 만드는 편이 좋겠 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민주 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주식거래 내역 신고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서 팀장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 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매각 신고만을 법적 기 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제도에 허점이 있고 감시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데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 고 남겨두는지 의문이다. 22대 정기 국 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 /서울=김영묵기자



道, 올림픽 유치 응원 '대국민 SNS 이벤트' 3차 돌입

이달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콘텐츠 해시태그와 SNS 게시 2차 이벤트 션 참여 영상 화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전주 하계올 림픽 유치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 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마지막 3회차를 시작

일까지 진행되며, 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의 슬로건인 "함 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 아래 가족, 친구, 동료와 함 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움직임을 실천 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2인 이상이 함께 운동하거나 활동 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해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

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 면 된다. 스트레칭,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 모가 완료된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2 회차 이벤트를 운영해왔다.

특히 2차 이벤트에서는 기부천사 션 (Sean)이 참여한 응원 홍보 영상이 공개 이번 이벤트는 9월 22일부터 10월 19 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좋아 요 1만 건,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 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다.

> 이번 3차 이벤트의 당첨자 추첨은 10 월 23일에 진행되며, 총 115명에게 경 품이 제공된다.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 에게는 특별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자 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 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할 /장정철 기자



전북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국민적 응원 확산을 위해 '대국민 SNS 참여 이벤 트' 마지막 3회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가수 션 개인 SNS의 올림픽유치 응원 이벤트 참여. <사진=전북도>

이재명대통령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行

23일 유엔에서 기조연설 일정 24일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국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공항에서 김민재 행 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 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 기 원내대표, 헬러 주한미군대사관 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현 지시간)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 장 겸 블랙록 회장과 미 상.하원 의 기로 했다. 원단 접견하고 이어 한인 동포 간담

회에 참석한다.

이어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 설에 나선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 엔 사무총장과의 면담한 뒤에 저녁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출 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 만찬을 할 예정이다.

또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 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 의를 주재하고, 25일에는 뉴욕 월가 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차석 등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 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 탄, 체코, 폴란드 정상과 회담을 갖

> >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여성 농업인 목소리 청취…정책 체감도 높인다

전북여성농민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돌봄·장비 지원 방안 소개 우수 사례·청년농 경험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2025 전북여성농민 정책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명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회장 송미옥)과 도내 8개 시 군 여성농민회가 공동 주최 주관한 가 운데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비롯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산업국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황양택 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오미란 젠더앤공동 체 대표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 농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 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민선식 전 북도 국장이 육아·돌봄 농가도우미 제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농업인 150여 도,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건강검진 등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조원지 전북연 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영농부담 완화를 위한 세심한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오은미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체계의 제도화와 여 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재 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 가 소개되고, 여성청년창업농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공유되어 다양한 세대의 기념식에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 농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2025 전북여성농민 정책토론 한마당 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송미옥 회장은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 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여성농업 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 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여성농업인 의 영농활동과 일상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목소리 듣고 꿈 지켜내야"

민주당 전북, 청년의 날 성명 발표 "창업농·예술인 정책 반영 노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 해 "9월 20일은 청년의 날로 우리 사회 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 의 꿈을 지켜내야 함을 일깨우는 날이 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담, 자산 형성의 여러움, 고립과 단절 등으로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데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옮겨간 전 북 청년의 규모가 전국 최대치라는 통 계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전북을 떠나 야 하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게 한

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 청년 농업인,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창업농 초기 진입 장벽, 실습 현장 환경 개선, 민간 공연장 인력 지원 사 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청 년이 체감하는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만남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고 밝혔다.

특히 "청년이 빛나야 대한민국이 빛 나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 도당은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 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임실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 시범 선정 강력 촉구

"지역 재건 중요한 전환점 될 것 지역화폐 지급 경제 선순환 효과"

농어촌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추진연 대(이하 추진연대)는 22일 도의회 브리 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 본소득 시범사업의 임실군 선정을 강 력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임실군의 심각한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기본 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 라,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 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 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자립경제력이 최하위 수준 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와 경 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추진 연대는 기본소득을 "지역 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이자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

임실군은 지난 15년 동안 5,000명 이 상의 인구가 유출되며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떠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 부 마을에서는 식당, 이미용실, 마트 등 생활 필수 서비스가 사라지고 주민들 의 기본 편의가 위협받고 있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 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주민들 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을 통해 작은 상점과 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직원 소통·청렴 역량 강화 연찬회

정읍서 22·23일 1박 2일간 진행 JS커뮤니케이션 박정순 대표 염건령 교수 '공직 청렴' 주제 강연

직원들은 22일부터 1박 2일 간 정읍 일 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 을 강조했다. 회를 실시한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통 역량의 중요성 무"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션 박정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말이 펼친다. 염교수는 "청렴은 개인의 덕목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라는 주제로 특 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이며, 실천 없 며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 강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조직 내 소통 는 선언은 의미가 없으며, 공직자의 청 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일 잘하 활성화와 갈등 예방, 신뢰를 높이는 공 력은 법률 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감적 소통 능력, 도의 리더로서 긍정적 라,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 책 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문승우 의장은 "연찬회가 도정 및 교 고 밝혔다. 23일에는 염건령 교수가 '공직자가 알 육·학예에 관한 정책과 지방자치 및

연찬회 첫날인 22일에는 JS커뮤니케 아야 할 청렴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폭넓게 이해하 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소통하 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라는 공동 을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

/장정철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2~5개월



우유팩: 5년



20년 이상





전주시, 추석 명절 종합대책 가동

7일간 종합상황실 운영 4개분야12가지과제수립추진

전주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시 민들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따뜻 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 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시민 불 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23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할 계획이다. 10월 9일까지 약 2주간 △시민 안전 편 익 증진 △민생경제 활성화 △비상진료 체계 확립 △종합대책 시민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추석 연휴 종 합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 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 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별 신속 편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또 장보기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해 내수경기 활성화 진 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추석 전 행정 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물가대 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 을 통한 지역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와 추석 명절 성수품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 현장 지도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감염병 발생 대 비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연휴 기 간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 말했다.

약국은 유선 안내 및 누리집, 스마트폰,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개천 절부터 추석, 그리고 한글날까지 이어지 는 7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귀성객과 시 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전주 를 찾는 관광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경 험해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각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자원순환 사회 구현·저출산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난임극복지원'가결'

전주시의회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팔 복,송천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종이팩 분리배출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난임



다고 22일 밝혔다. 종이팩분리배출활 성화에관한조례안 은 재활용 가치가 높 은 종이팩의 체계적

극복지원에관한조

례안을 각각 가결했

분리배출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레안에는 △책무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관 계기관과의 협력 △포상 등의 내용이 담



이국 의원은 "종 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 가 많았다"며 "조례

겨있다.

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와 자원순환의 사 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난임부부의 경제 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이팩은 재활용 가치 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난임극복 지원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최명권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시가 난임 치료와 지원에 적극 나서 출산 친화 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저소득 주민 위한 자활사업 '잘했다!'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전주지역·덕진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 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전주지역자활 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 등 전주지역 2 개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 22일 밝혔다.

또 아침 결식 개선 시범 사업 '가족애 찬 사업단'과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청년 카페사장님 만들기 사업'이 각각 지역특화사업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자 활사업 실적을 종합 심사해 역량 강화와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 터는 총 30개 사업장에서 500여명의 저 소득 주민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

원사업(노인 280여 명 밑반찬 배달) △ 1회용 기저귀 줄이기 사업(천기저귀 렌 탈·세탁)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 다회용컵 대여 · 세척 사업 등이 추진되며 환경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창 우수기관 및 장려기관 선정은 전주·덕진 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전주지역자활센터 '가 께 쌓아온 성과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족애찬 사업단'은 아침 결식 청소년과 저 소득 가구에 건강한 식사를 지원해 학습 마련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 집중력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덕진지역자활센터 '청년 카페사장님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과 역량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지역자활센터 2개소 모두가 주민들과 함 자활참여자들이 자립할 다양한 기회를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P-EMS 학습연구실' 구급서비스 혁신

현장 사례 기반 순환형 학습 응급의료품질 한 단계 도약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가 구급 대원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교육 모델 'P-EMS 학습연구실'을 운영 하며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고도화에 나 섰다.

이 연구실은 구급전문교육사, 구급의 사, 구급담당자 등 응급의료 전문가와 현 장 구급대원이 협력해 중증환자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전문적 피드백을 순환적 으로 공유하는 선진형 학습 플랫폼이다.

현장 실무 중심의 구급 교육 체계를 마 련함으로써, 구급대원들의 전문성과 임 상 판단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 심 목표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가 구급대원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교육 모델 'P-EMS 학습연구실'을 운영하며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전주완산소방서 구급팀은 "경험 많 은 구급대원이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구급지도관과 의료진의 체계적인 피드

백을 받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시기였 던 2021년부터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Naver Band)으로 시작해 총 54명의 구 급대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이어가 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중증환 자 사례 연구 및 전문가 피드백 공유 △ 현장 활동일지 기반 실무 역량 강화 △ 실시간 응답형 의학 질의응답 서비스 등 이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응급의료 환경에서 구급대원 의 역량 강화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 전선"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연구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 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외국인 대상 '황금보름달이벤트' 진행

전주지검 양현세 검사 초빙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 호은)은 환경청, 전북도 및 14개 시·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환경특사 경), 지도·점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특사경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전북지역에 약 90명이 지명되어 있다.

이들은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각종 환경분야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업 무를 수행중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 환경특사경의 수사역량과 지도·점검 공무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청 주관으로 마련됐다.

전북환경청-검찰청,'환경특사경수사 역량강화' 교육

교육은 전주지방검찰청 환경분야 담 당 검사(양현세 검사)를 초빙해 23일 환 경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양현세 검사는 인천지검, 목 포지청 등을 거친 환경담당 검사로 △ 환경특사경이 알아야 할 환경범죄 수사 실무 △주요 환경범죄 수사 사례 및 판 례 분석 △환경사범 수사기법 등을 중 심으로 강의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검찰청 과 함께 환경특사경 수사역량을 강화하 는 등 지역 내 각종 환경범죄 예방과 환 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기간내 금 10돈(37.5g) 2명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 'Bravo Korea(브라보 코리아)'를 통해 특별한 경품 행사인 '황금보름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 다. 어진다. 특별한 황금보름달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금 10돈(37.5g) 추첨을 통해 총 2명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매일 1명씩 금 1돈(3.75g)을 증 정하는 등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파격 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 매일 100명에게 편의점 쿠폰, 매 일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 혜택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 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 도록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Bravo Korea 앱을 통해 △출석체크 △해외송금비교 △이벤트 소문내기 △체크 카드 사용 등의 미션 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지급된

전북은행 Bravo Korea 관계자는 "추 석은 한국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 는 큰 명절"이라며, "이번 황금보름달 이벤트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 문화를 더 즐겁게 경험 하고,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더욱 편리 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봉사동아리 견과류,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서수상

유기견 보호 봉사에 앞장

솔내청소년센터(센터장 김관우) 는 '제27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 회'에서 소속 청소년 봉사동아리 '견과류(Dog With Youth)'가 동상 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청소년 봉사동이리 '견과류'는 솔 내청소년센터의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된 유기견 봉사동아리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유기 견보호소 청소 △목욕 봉사 △간 식 나누기 △입양 홍보 캠페인 △ 지역사회 유기견 인식변화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동아리 대원들은 월 1회 이 상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

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을 가졌다.

봉사동아리가 받은 장학금 100 만원은 유기견들의 건강과 더 나 은 생활을 위해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결정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솔내청소년센터는 지난 2024년 달루나유기견보호소와 협약을 맺 고 청소년들의 유기견 돌봄 활동 을 이어왔다.

박금희 전주시 인구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이 유기견 돌봄 봉사활 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기특 하다"며 "전주시도 청소년들이 현 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와 참여 활동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추석명절 '특별운전자금 5000억' 지원

10월 21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 일)은 내달 21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 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상 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 출을 지원한다.

전북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 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 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 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 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두원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올 한해 도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을 위해 약 57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1600억원 대출공급을 했다"며 "매년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사회공헌사 업에 투입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 혔다. 이어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 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사회적 약자 지원 나눔 전달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1 · 2동 자율방범대가 함께 했다. 민·경 공동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제 2회차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폭력 · 아동학 대 관련 미취학 범죄 피해자 △한부 모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증 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해 마 련됐다. 특히 '사랑 나눔 전달식'은 화 산 지구대 경찰과 다양한 민간 조직 등 공동협력을 통해 노력한다는 점에 서 눈길을 끌었다. 사랑 나눔 전달식 은 예수병원, 전주 중산신협, 중화산

전달식을 통해 경제적 빈곤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 등 10 가구를 선정,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의 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 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안전에 기 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 로 병원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 회와 동참하는 다양한 공헌활동을 이 어가겠다"고 전혔다.

/정소민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전주시에 '수소전기라면' 전달

'전주함께라면' 복지사업 동참

현대차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 구)은 22일 '전주함께라면' 복지사업 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소전기라면

3000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현대 자동차 전주공장 장현구 공장장,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 해 뜻을 모았다.

'전주함께라면'은 전주시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시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에 누

구나 와서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유공간(라면카페)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사업 취지에 깊 이 공감해 후원을 결정했다.

전달된 수소전기라면은 현대차가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인 수소전기버 스와 수소전기트럭을 알리기 위한 홍 보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이다.

장현구 공장장은 "지역사회와 함 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도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 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 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경제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 '앞장'

23일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최…정책 비전 주요 추진과제 소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있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할 계획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경제민주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국내 최대 경제포럼이다.

'포럼'은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동안 롯데호텔 제주에서 약 4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포럼은 "중소기업인 도전과 혁 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 률 하락 등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에 중 소기업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연자로 참석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 방향을 제 시한다.

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주 요 추진과제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 △스콧 리 LBBS 한인그룹 대표변호사 등 미국 은 강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참

전략 세미나'가 이어진다.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 △정경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장 △ 최성애 HD 행복연구소장 △황창연 성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조강 필립보 생태마을 신부 △썬킴 역사 스 토리텔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 강연과 모슬포 중앙시장 장보기를 통 한 서귀포 지역 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아울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회와 상생하는 나눔도 실천할 계획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포럼 2일차에는 '중소기업 미국진출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현안에 대응하며 해법을 모색해 온 대한민국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포럼은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다채로



석한 CEO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검역본부 '수입 농축산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병행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치단 내달10일까지검역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 하 검역본부)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요 해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 플루엔자(HPAI)과 붉은불개미, 과수화 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0일까

검역본부는 먼저 △해외여행객, 외국 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 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 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 검역본부의 농축산물 검역 강화는 주 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 산물 검역에서는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강도높은 검역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할 계 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

동시에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 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 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 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 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더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 했다.

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 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 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 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병 행한다.

>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 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 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 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 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명절 물가 안정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최선"

한가위 큰장터서 농심천심 홋보·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025 전 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농죽산물 식거래 판매와 농심전심 (農心天心)운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맞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상생 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무진장축협이 참여해 사과·배·곶감·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머스켓·한우·표고버섯 등 제수용품

을 중심으로 시중가 대비 최대 20% 할 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

이정환 본부장은 "농심천심은 농부 의 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잇는 '상생 의 약속'이다"며 "이번 한가위 큰장터는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운동'의 취지에 지역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고, 농가엔 실질 의 장을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에 기 적 소득을 보태는 자리다. 전북농협은 전북자치도 · 지역 농 · 축협과 손잡고 명 전북농협은 익산원예농협·고산농협· 절 물가 안정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전북농협은 '2025 전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와 /정혜민 기자 농심천심운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전통식품 가치 경험 행사 열어

수산비즈니스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체험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체험행사는 젊은 세대가 우리 전통 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품'에서 진행됐다.

△막장·된장쿠키 만들기 △전통식품 발효원리 설명하며 전통식품의 산업

적·문화적 의미 등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제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 공·조리 등의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원장 김민욱)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농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고

> 이를 통해 생산자는 부가가치를 높 이고 소비자는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 행사는 익산시 소재 '황수연 전통식 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주요 내용은 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김영태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배터리 코리아 2025 참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새만금 를 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운영했 다.

홍보부스 운영은 지난 9월 22일 '배 2025)' 참여에 따른 것으로 이날 이차 전지 산업 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조 장비, 전고체 배터리 기 술, ESS 및 V2G 인프라 등을 전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배터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AI 융합 기술 등이 선보여졌다.

이광헌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홍보부스 지사업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 내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광물가공부터 소 터리코리아 2025(BATTERY KOREA 재, 셀,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조성되고

이번 '배터리코리아 2025'는 전북특 이 자리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별자치도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 동시에 K-배터리 생태계 완성에 전 북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대 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태 기자



농협전북본부는 전북 농축협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농축협 건전결 산을 다짐하는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전북농협, 농축협 하반기 상임이사 건전결산

금융업 추진 방향 토론도

환)는 전북 농축협 상임이사를 대상 으로 '25년 하반기 농축협 건전결 개최했다.

협 사업결산방향과 세계경기 동향 및 금융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로서 농민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했다.

경영위기 극복, 실익증진 등 본분

을 다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어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농협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 이란 의미의 '농심천심운동' 확산 의지를 다졌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대내외적 산을 다짐하는 회의를 지난 19일 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모 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목표 이날 회의는 '25년 하반기 농축 한 바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 기"라며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구현에 기초가 되는 건전결 아울러 농축협의 전문 경영인으 산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

/정혜민 기자

LX,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청렴정책 실행 강화

명소)가 경영위기와 관련된 부패 취약 분야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LX공사는 22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반부패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정 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LX 청 렴인증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

청렴인증제도는 LX공사의 전 부서에 서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청 렴정책 중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올해 총 22건이 인증됐고 이 중 8건이 우수 청렴정책으로 인증됐다.

주요 우수 청렴정책으로는 △청렴 기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반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글

로벌 청렴 파트너십 프로그램 △CS & 청렴 모니터링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 개선 등으로 경영위기 속에서 적극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 LX공사는 앞으로도 비상경영 반부 패추진단 회의를 통해 경영위기와 관 련된 부패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도 출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인이 주체 가 되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 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반부패·청렴정책을 기반 으로 하는 경영정상화의 길에 임직원이

/정혜민 기자

전북조달청-이노비즈, 기술기업 성장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지역 당회의 건의사항 진행 현황을 공유하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위한 방안을 이 고, 현장 애로사항과 추가 건의사항을 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임원들과 논의했 청취했다.

입·규제 완화 방안 검토 등 다양한 방 다"고 말했다. 안을 검토했다.

장, 공공조달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1차 간

이 자리에서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를 위 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들의 생 해 22일 2층 회의실에서 전북지회 임원 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공조달 제도의 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 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

이어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담회에는 김항수 청장, 전북지방조 이 조달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 달청 관계자,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발행

내달 17일까지 예약 접수

전북지방우정청 '2025 전주드론축구 월드컵 기념우표' 예약 접수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최동원 청장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을 소재로 한 특별한 기념우표를 발행 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는 △공식포스터 △대회로고 등이 이 미지에 포함되도록 제작됐다.

특히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에 발행 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유 표를 통해 드론축구의 발전과 함께 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우표 예약은 온라인 홈페이지(www. koreapost.go.kr/561/index.do)를 통하 면 된다.

예약된 '나만의 우표'는 10월 29일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최동원 청장은 "이번 발행되는 기념 우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을 널리 홍보하고 드론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축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사 적인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 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우 표에 담아 지역사회 홍보와 우표문화

> > /김영태 기자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서 교육감 인사 정책국장 '정치적 중립 훼손'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개방형 직위 이해충돌 방지조례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간부공무원 대상 특강과 감사관실 감찰 강화를 내 세운 것과 달리 실제 행정운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태도들 보이 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22일 성명

감권한대행이 청렴과 중립을 강조했지 만, 직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 할을 한 인사가 여전히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건 중립 강조가 '공허한 구호'에 불 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직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차단해 교육행정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의

서를 통해 "지난 18일 유정기 전북교육 허점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 지 않도록 조례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구 조는 예산과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정 책국장 보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 기간 정치활동 제한 △선거 전 사직 후 특정 후보 지원 및 당선 후 복직하는 편법 원천 차단 △교육감 직위 상실 시 개방형 직위자의 권한 제한 및 관리감

독 강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포럼은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신라와 공 정성을 지탱하는 헌법적·제도적 원칙이 다"며 "전북교육청이 이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교육청은 특정 정치세 력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 스스로 공직 윤리를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1인당 8만원 지원

선별적 지원→보편적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졸 업앨범비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지원한 이 완료된다. 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소 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의 초등학생 8,449 명에게 4억9,945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이

미 지원했고, 소규모학교 학생 1,293명에 게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억5,390만원을 9월 중 추가 지원하면 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 을 시작했다. 만원 이내의 학교별 앨범 계약단가 금 액으로 학교에 교부되며, 학생에게는 현 물로 지급된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에 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 그 외 미지원 학생 4,332명에 대해 2 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왔다.

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2024년부터 지원

도교육청은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5월 말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

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 을 확대하게 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연 도 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일부는 그러나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 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 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 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 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지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전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축구 등 시 군 단위 왕중왕전 군단위학교우승'눈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22 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초·중·고 총 404개 팀, 5,07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 며, 축구·농구·배드민턴·탁구 등 16 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군 단위 학 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시·군 분리로 운영된 축구 남중 부 왕중왕전에서 완주 봉서중이 전 주오송중을 1:0으로 이기고 우승 을 차지했고, 남고부에서는 전북 유니텍고(장수)가 원광고(익산)를 2:0으로 누르고 대회 챔피언에 올 랐다.

시·군 단위 왕중왕전 농구경기에 서도 군 단위 학교들이 우승을 차

고창 자유중은 전주 평화중을 46:4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무주고는 전주 우석고와 치열한 접전 끝에 48:47 한점차 승리로 우 승의 영광을 안았다.

무주고와 고창 자유중은 대회 최 초 농구종목 군 단위 학교 우승의 주역이 됐다.

이들 종목 외에도 16개 종목의 우 승팀은 10월부터 개최 예정인 제18 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전 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협력과 존중의 가 치,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과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 이 자율적이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 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CSIS 무대서 한·미 방산 협력 기반 다져

국방·우주·AI 분야 글로벌 협력 가속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미 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에서 열린 '2025 방위사업 청-CSIS 컨퍼런스'에 국내 대학 최초 로 참여하며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첨단기술 및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한·미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주 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해 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前 인도태 평양사령관), 마이클 바카로 미 국무 부 차관보 등 한·미 양국의 고위급 인 사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았다.

양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 미 동맹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대학교는 첨단방위산업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가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2025 방위사업 청-CSIS 컨퍼런스'에 국내 대학 최초로 참여하며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다.

학과들 중심으로 드론, 우수, 사이버, 피지컬 AI 등 신흥 분야에서 인재를 개·비공개 세션, 만찬 등이 이어지며 이날 행사에서 양오봉 총장은 개회 길러내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 방산 인재 양성은 곧 국가 장 외에도 강은호 교수(전 방위사업청 은 무기 구매와 기술 이전을 넘어 공 안보와 직결된다"며 "방위사업청과 장), 장원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학 동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확장되 CSIS,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들과 함 문적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공유하 께 국제적 연구 협력과 인재 양성을 며의미를 더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조연설, 공 한 · 미 양국의 방산 협력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전북대에서는 양 총

/최성민 기자



기전대 산학협력단,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홍보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19일 '순창군 일 구하는 날'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지역산업맞춤형(지산맞) 일자 리창출 지원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했

산학협력단은 참가자가 창업자의 중 간 성과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 업 홍보물과 제품(서비스)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심자와 창업자를 직접 연 다.

순창군청 관계자는 "전주기전대학 부스가 군민에게 체감 가능한 취·창업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며 "순 창군은 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하 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예술기행' 통한 예술인 교류 확대

창작 역량↑ 외부 교육·교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교류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2025 함께하는 예술 기행(2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으로 한정된다.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사업의 일환으 로, 예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창작 활동에 새로운 영감 을 얻도록 기획된 외부 교육·교류형 지 원 사업이다.

참가자는 오는 10월 31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태양의 서커스 '쿠자'를 관람할

참가 신청은 9월 24일 17시부터 선착 순으로 받으며,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 사 이경윤)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다. 접수는 이메일(jbart2024@hanmail net)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단, 2024년 1·2차 및 2025년 1차 프로 그램에 이미 참여한 예술인은 신청할 수

이경윤 대표이사는 "함께하는 예술기 행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의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길 바란다"며, "재단도 예술인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할 수 있 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대, 학생 역량 강화 '2025년도 진로캠프' 운영

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진로캠 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 △커리어 로드맵 설계 등으로 구성됐다.

이자선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상 양성사업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심중표 교수(화학공학과)는 "학생들이 이번 진로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 산업이 요구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자기 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수 입교차 큰 환절기 건강하기 이겨내는 방법

실내온도와 습도 조절하기



외출 후엔 손과 발을 깨끗히 닦



외출시 여분의 걸옷 챙기기



옷장과 서랍까지 환기 시키기



적당한 운동과 비타민 섭취하



따뜻한 물로 충분한 수분 보충 하기

익산시, 11월 말까지 수확철 '농기계 임대 특별근무' 돌입

익산시가 수확철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특별근무 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무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임대사업소는 함열본소, 동부분소(금마 면), 남부분소(오산면), 북부분소(망성면) 로, 사업소별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토요 일에도 농업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석 연휴인 10월 6~9일에는 운영하

지 않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경영비 절감과 농 촌 일손 부족 해소에 이바지하며 농업인 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5.016농가가 총 7.181대의 농업기계를 임

대했다. 특히 올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새 롭게 문을 연 북부분소는 북부권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권역별 균형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요일 특별근무 운영으로 농업인들이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 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나포면 보건지소 신청사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 기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최 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포면 보건지소 신청사 개소식이 2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보건 관계자, 군산 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보건지소의 새 출 발을 함께 축하하고, 지역 보건 발전에 대 한 기대감을 나눴다.

개소식 후 건강 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 부 스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문을 연 나포면보건지소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352㎡ 규모로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처치·소독실, 다목적실 등 다 양한 보건 서비스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신청사는 노후화된 기존 건물 을 대체해 신축된 것으로, 인근 지역 주민 들까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건서비스 를 제공받게 됐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문다해 군산시보건소장은 "새로운 나포 면보건지소는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주 민 건강을 지키는 거점이자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제 지역주 민들에게 쾌적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군산시 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신규임용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군산시가 22일 군산 청년뜰에서 안전하 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김혜영 강사(現 군산성폭력상담소 소장)는 '같이! 함께! 성인지 감수성 UP'이 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장 내 사례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설명했 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우리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 고,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실천에 앞장서 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0월에는 고위공직 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 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천 달하다리, 문화공간 '탈바꿈'

9경 벽화LED 조명 쾌적·안전한환경제공 문화 담은 명소로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 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 다.

정읍시는 최근 달하다리 교대 벽체를 활용해 '정읍 9경' 가운데 내장산국립 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사공원과 달빛사랑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 성서원, 용산호 등 6곳을 주제로 한 벽 화를 조성했다.

또 LED 조명을 보강 설치하며 산책 로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로 마감돼 단조롭게 보이던 다리 벽체는 정읍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예술 공간으로 거 듭났다.

낮에는 정읍의 대표 명소를 담은 벽 화가 산책객들의 눈길을 끌고, 밤에는 한층 밝아진 조명이 어두운 길을 밝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정읍시>

으로 변모했다.

특히 벽화는 정읍의 아름다운 경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는 즐거움을 더

또 다리 하부에 설치된 LED 조명은 산책로를 환히 밝혀 정읍천을 찾는 시 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 경을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달하다리 벽화와 경

관조명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의 매력 을 알리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천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 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추석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29개다중이용시설 등 정비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하며 시민과 귀성객 맞이 에 나섰다.

익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하천·도 로・시가지 전역에서 대대적인 환 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9개 읍면동 다중이용시설,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청소 취약 지를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볼거리·먹거리·숙박시설 주변을 집중 정비한다.

이번 활동에는 공무원과 자원봉 사단체, 지역 자생단체, 유관기관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도심 곳곳을 말끔히 단장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

체와 특별청소반을 운영해 주요 가 로변 환경정비와 신속한 쓰레기 수 거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는 지방도와 시도 등 약 180km 구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견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 해 도로변 제초, 잡목제거, 인도 제 초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통 시야 확보와 사 고 예방은 물론 보행 안전성도 높

정헌율 익산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을 찾는 모든 분이 안 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천, 도로, 시가지까지 전 방위 정비에 나섰다"며 "시민과 방 문객 모두가 웃음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확대

'청년정책 제안소' 운영 제안 검토·정책화 추진

익산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 고,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화한

시는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 '청년정 책 제안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 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정책 제안소는 익산시에 거주하 거나 활동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참 여형 플랫폼이자 소통 창구다.

아이디어 제안은 상시로 가능하고, 게시된 제안은 20일간 공감 기능이 부 상이다. 여된다.

공감 수가 50건 이상인 제안은 청년 정책 실무협의체의 공식 검토 대상이 가 생겨 기대된다"며 "제안이 실제 정

이후 소관 부서가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연말에 는 최우수・우수 제안을 선정해 청년참 여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익산시는 제안소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실무협의 체와 연계해 청년시청을 실질적인 시 정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

한 청년은 "평소 느끼던 지역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창구 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의 목소리가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 명칭의 뿌리 '우물' 지킨다

전통 우물 체계적 보존·정비

정읍시가 지역 명칭의 근원이자 생 활사적 가치를 간직한 전통 우물을 체 계적으로 보존 정비한다.

는 지역 명칭의 상징을 지켜내고 향토 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9월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 해 300여 개의 우물이 확인되면서 본 다.

등 5개소로 △봉양마을 우물 지붕 설 치 △조소마을 우물 덮개 교체 △상흑 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정읍의 전통과 마을 우물 주변 조경 정비 △현암·표 향토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천마을 우물 구조물 보강 등 정비가 고말했다.

진행된다. 시는 각 우물에 안내판을 설 치해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 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시는 '우물 정(井), 고을 읍(邑)'이라 사라져가는 전통 우물을 보존해 생활 사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 정체성을 강 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우물을 상 징적인 향토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동 시에 전통과 문화를 담은 관광지원으 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상은 "우물은 지역 병정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문화를 담아낸 올해 정비 대상은 입암면 봉양마을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 해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7~28일 '친환경 레이크마켓' 열려

직거래·환경친화형 체험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는 도마련돼 있다. 농산물 판매 행사인 '친환경 레이크마 켓'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일원에서 열린 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에서 직접 재배 한 친환경 농산물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식 및 만들기 체험, 농산물 꾸러미 응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특히 판매 농산물 모두 화학비료와 농 식으로 재배돼 안전하고 건강한 품질 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

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인 절미·김치·고추장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주최측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주말 은파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친환 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진완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번 레이크마켓을 통해 친환경 농 산물을 군산 시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 방문객들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쌀, 며, "이 행사를 기점으로 군산시 친환경 버섯, 고추, 참깨, 콩, 미숫가루 등 다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김상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도 "레 약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방 이크마켓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



접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행사" 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경쟁 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대 반려동물 한마당, 27일 익산서 개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 서 열린다.

물 한마당'이 오는 27일 오후 1시 전북 대학교 익산특성화캠퍼스에서 다채롭 게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멍냥 그립톡 만들기 △발도장 추억액자 △반려동물 건강 진 콘테스트 등 무대 프로그램이 마련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돼 현장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들에게는 리유저블백, 텀블 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익산에 러, 부채 등으로 구성된 기념 선물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부스별 스탬프 투 익산시는 '2025 전북대학교 반려동 어와 이벤트 무대 프로그램을 통해 제 공되는 펫 드라이기, 자동 급식기, 강 아지 유모차, 카시트 등 푸짐한 경품도 현장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축제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검진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려동물 산책룩 펫션쇼와 OX 퀴즈, 사 친화관광도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특별전시

시립박물관서 12월 7일까지 작품도구총33점전시

일까지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선생 을 조명하는 전시 '무언의 가르침, 달마' 를 연다.

소공 이명우 선생은 1923년 감곡면 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화봉리 감뫼마을에서 태어나 불화의 대가 김일섭 스님에게 사사받았다. 이 과 그림 도구 등 총 33점으로 구성됐다. 후 1979년 일본 오사카 달마화 전시를 이를 통해 정읍 출신 서화가의 삶과 예 로 문의하면 된다.

화원 개원 초대전, 신익희 선생 유물전 로기대된다. 등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전시 활동 을 이어왔다.

정읍시립박물관이 23일부터 12월 7 려움보다 자비로움을 담아낸 것이 특 화가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 징이다.

> 거침없는 붓놀림 속에서도 따스한 눈 당부했다. 빛과 굳건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은 오

이번 전시는 후손이 보관해 온 작품 시작으로 대만역사박물관, 주일한국문 술세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시는 소공 이 명우 선생이 평생 화폭에 담아온 무언 그의 달마도는 위엄보다 온화함, 두 의 가르침을 체감할 기회이자, 정읍 서 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 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으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22일 군산시보건소는 야외활동이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늘고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 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진드기 매 9~11월에 발생했으며, 환자의 75%가 예방법"이라며, "번거롭더라도 예방수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 는 △밝은색의 긴소매·긴바지, 양말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의복 세 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 타하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해 치료받기 등이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 개 감염병 환자의 92%가 가을철인 개 감염병은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다고 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외활동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 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 선정

전통산사고택·종가집 활용사업등5개분야 국가유산가치확인성과

고창군이 2026년도 국가유산청 공 된다. 모에서 총 5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 돼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업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지역 국가유 산교육 활성화 사업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등이다.

▲3년 연속 선정 '생생 국가유산 활용 사업(生生고창, 굿과 함께)'=고창농악 을 주제로 공연, 교육, 체험, 숙박을 결 합한 프로그램으로, 상설굿판 공연, '농

교통편익 증진

사고 사전 예방 기여

부안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지

역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안

군은 현재 총사업비 7억 3000만원

을 투입해 부안 농어촌버스 회전교차

로 설치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

로 공사에 착공해 5지 1차로형으로 오

는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

그동안 부안 농어촌버스 교차로는 교

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혼잡구간

이었으나 오는 10월 5지 1차로형 회전

교차로 완공시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

통사고 사전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

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 사계절 굿스테이', '상생×재생 프로 젝트', '생생 퍼레이드' 등을 선보인다.

▲2년 연속 선정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국가민속유산 신재효 고택을 활 용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 전통 과 흥, 흥보가의 울림' 프로그램이 추진

판소리 마스터클래스, 창극 공연, 플 로깅 탐방 등 지역성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천년 선정 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 의 숨결 선운사)=선운사의 자연과 역 사지원을 활용해 인경체험, 천연 염색, 인문학 강의, 영산전 벽화 그리기, 동백 숲 보호 활동 등 치유·체험형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 ▲신규 선정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 성화 사업(고창농악, 미래를 같아)'=유 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고 말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안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10월 완공 박차

장단 따라 보물찾기, '마을굿아 학교 가자', 나의 소고·나의 춤 만들기, '꿈 꾸는 당산나무' 등으로 학생들이 농악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

▲신규 선정 '미래무형유산 발굴·육 성사업(무장읍성 칠거리당산 용당기 놀이)'=용당기놀이는 칠월칠석에 마 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민 속놀이로, 이번 사업을 통해 조사·연구, 주민 인터뷰, 기록화, 학술대회 등을 거 쳐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국가유산 청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군이 지닌 유 무형 국가유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 인된 성과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체 험·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을 계 승하고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여가겠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30일부터 벽골제 '입장료 무료화'

관광 활성화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30 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전 면 무료화한다.

시는 사적 111호인 벽골제관광 지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관외 거 주 입장객에 대해 시설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입장 료를 받아 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 까지 관내 및 관외 거주 시민 1,749 명을 대상으로 입장료 무료화에 대 한 설문조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의 79%가 입장료 폐지에 찬성해 폐 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입장료를 폐지하기 위해 지

난 7월부터 8월까지 시의회 의견수 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폐 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치를 완료 했으며 지난 18일 김제시의회에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 수 조례 폐지안'이 의결돼 오는 30 일부터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될 예

이에 따라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는 폐지되고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대로 유료화로 운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벽골제 관광 지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체험시 설, 상가 등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 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 겠다"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주요 현안 논의

오전 10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9 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20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 리계획안'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 다.

의원들은 홍보축제실로부터 '제27 회 김제지평선축제 연출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 지 개최 예정인 지평선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 광과가 보고한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2일 업의 실효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 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고, 회계과가 상정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 인 검토가 이어졌다. 특히 △환경과의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 △공원녹지과의 '신풍동 역전주변 공 원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민 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주민 및 탐 방객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 차원 에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

환경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부안이 안 전한 교통 선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소비쿠폰 지급 시작

내달 31일까지 동시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고창군이 10월 31일까지 '군민활력지 원금' 20만원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만원의 동시 지급을 시작했다 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상

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 폰 10만 원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지

고창군이 지원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은 지난 15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 이고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민에게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 혔다.

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 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에서 자체적 으로 마련한 군민활력지원금은 정부 2 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군민 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 역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지역공동체 지속 가능성1

고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심 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조 만기·김성수 도의원 등이 참여한 '더 불어민주당과 고창군이 함께하는 정 책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기복소득 시 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 졌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 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 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고창군민 전체 (5만800명 기준)에게 지급되면 2년간 1829억원이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 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김 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 는 경제부양 효과로 지역공동체의 지 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기본소 득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인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을 지키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 라며 "시범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인 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 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전북현대와 손잡고 지평선축제 홍보

정성주 시장 '파트너데이' 관중들에 축제 쌀 알려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북현대와 손잡 고 '김제파트너데이'를 통해 지평선축 제와 김제쌀을 홍보했다.

2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김천상무와 전북현대 30라 운드 경기에 참가해 '김제파트너데이' 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홍보부스를 마련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김제 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이와 함께 '김제 지평선쌀', '쌀 마스크팩'등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홍보부스에서 김제지평선축제 SNS 구독 이벤트와 김제시 SNS 구독이벤 트, 고향사랑기부로 이날 경기를 찾은 2만여 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북현대와 손잡고 '김제파트너데이'를 통해 지평선축제와 김제쌀 을 홍보했다. <사진=김제시>

현대 선수단에 기부했으며 전북현대는 기증받은 쌀 20포를 김제 지역 노인의

료복지시설에 다시 기증했다. 정 시장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전 했다.

특히, 이날 시는 20kg 쌀 20포를 전북 북현대가 김제시와 함께 김제파트너 데이를 진행하게돼 김제지평선축제 역시 전북도민과 전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는 2026년도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에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업인 교육 수 비치된 수요조사 리플랫을 활용해 참 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부안군농 업인대학 △품목별 맞춤교육 △전문 농업기술교육 △새해영농기술교육 등 4과정 농업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접수하고 수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속 발굴 운

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는 군청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나 각 읍면 농민 상담소에 여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모든 교육은 농업인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만 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올해 수요조사에서는 특히 교육 프 다"라며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반부패 청렴 교육 "사적이익 추구행위 엄단"

고창군이 지난 19일 동리국악당에서 심 덕섭 고창군수와 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김세신 원장(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 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 용을 알기 쉽게 강의해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 정신 에서 나온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무 원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 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적극적이고 친절 한 대군민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농업가치창조…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가족한마음대회성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의 화합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조 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제32회 한국후계농 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한마음대회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 센터 야외행사장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서 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과 한농연 김제시 연합회 박인규 회장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 사 및 축사로 진행됐으며 이후 체육행사와 문화활동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마음 의 시름을 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가 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 을 가졌다.

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박인규 회 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 속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을 유지 하며 어려움을 헤쳐나왔으며, 이러한 위기 를 기회삼아 현실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농 업인이 되자"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년에 이어 이상기 후에도 불구하고 김제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 사하다"며 "시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마련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가족통합프로그램 '소통하우스' 2차 운영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0 일 가족통합프로그램 2차 '소통 하우스' 주 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체험 활동을 진 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 이용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간담회와 가족구성원이 한 팀을 이뤄 가족소통활동(베이킹&떡만들 기)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도모하 고, 가족 간 소통으로 유대감을 높이는 시 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자녀와 소 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집이 아닌 곳에서 아이의 활 동 모습도 확인하고, 자녀와 좀 더 가까워 지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긍정 적 교감을 나누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 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어민공익수당 26일까지 지원

어업공익활동보상・소득안정도모 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1인경영체60만원지역화폐지급 2인이상경영체구성원별30만원

남원시에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 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 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을 22일부 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 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체는 연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지역화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 이번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 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 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어민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 지원과를 방문하여 지급 절차를 완료 한 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급금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 지급 기간 동안 원활한 수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 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철저히 할 계 획이다.

>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민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어업인 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에 더 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서 우수상 수상

서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공연예술 및 생활예술, 문화유 산·역사, 문화교육 등 3개 핵심 문화사 업이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예술 접 근성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 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 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2019년 부터 매년 문화 핵심가치 실현에 뛰어 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순창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억 750 만 원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 버스킹 공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상설공연, 관광지 국악공 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했 다. 이 사업에는 지역 예술인 133개 팀,



순창군이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은행 영업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 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

군민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 원이다. 돼 혼잡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한은 10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 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사진=순창군>

인 김병로 선생 서세 60주기 추모식 및 학술대회, 여암 신경준 선생 선양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지역의 문화유 산을 조명하고 활성화에 힘쓴 점 역시 의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광지 버스킹 공연과 찾아가

을 조성하고, 9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를 통해 읍·면 단위까지 문화교육 기회 또한 제28회 삼인문화 기념행사, 가 를 확대한 점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

>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 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고유 과"라며, "순창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 체성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순창=박지헌 기자

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소비쿠폰

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

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들이 불편 없이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개 법인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쾌거'

지리산묵가 하이오백 2개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대

남원시는 2025년 제3차 고용노 동부 사회적기업 심사 결과 지리 산맑은물춘향골영농조합(이하 '지 리산묵가'), 농업회사법인(유)하이 오백(이하 '하이오백') 2개소가 사 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국적으로 50개 법인이 새롭게 재료로 하며, 최근에는 메밀부각 지정됐다.

지리산묵가(대표 소성진)는 3대 비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째 가업을 살려 국내산 도토리를 원재료로 전통 묵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지식인장 수상과 쌀묵·도토리불고기 특허, 국제식품안전관리인증과 비건 인 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전북 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뒤 혔다.

우석대서 하반기 첫날 행사

농가 발굴 연계 로컬푸드 공급

완주군이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하반기 첫날 맞

이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22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교양관

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하반기 첫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박노준 우석대 총장, 김정은 사회적협

동조합 양지뜰 대표 등이 참여해 바

쁜 학업과 생활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

용한 아침식사를 직접 전달하고, 격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사업의 성공적

인 추진을 다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추진에 나섰다.

날 맞이 행사를 가졌다.

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힘써왔으며, 지역 농 가와의 계약 수매를 통해 소득 증 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이오백(대표 허정진)은 2023 년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된 이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김부각을 생산하며 결혼이주 여성 일자리 제공에도 나서고 있 다. 고랭지에서 생산한 김부각은 장흥무산김, 현미유, 찹쌀 등을 원 과 땡초장 등을 선보여 국내외 소

시는 국비 예산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로 지원과 마케팅 교육에 집중해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도모해왔으며, 이번 인증 성과가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남원=정하복 기자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으로 구성한다.

보탤 계획이다.

라이온스협회 356복합지구 지원사업(순창라이온스클립)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순창군에 재해구호물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 재 박성춘)는 최근 순창라이온스클럽(회장 조길훈)으로부터 기탁받은 재해구호물품 100세트를 순창군에 전달했다.

박성춘 총재는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 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 해 주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 구와 순창라이온스클럽에 깊이 감사드린 다"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과 저 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근로환경 개선·안전대책 논의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근로자위원 과 사용자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 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직 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공설공 원묘지 4묘역 경사면 토사 유실 방지를 위 한 옹벽 보강 공사 추진 등 근로환경과 시 설안전 전반에 걸친 안건이 다뤄졌다.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상담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 후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묘역 옹벽 보강 공사는 안전사고 예 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 치로 추진된다.

이희수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근로 자의 복지와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공연·교육·역사 아우른 성과 인정 '군민문화접근성높여' 평가 지역고유문화자산활용'주목'

순창군이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

해 시상하고 있다.

총 744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관람객 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가구 소득 하위 90% 1인 10만원

사용기한 오는 11월 30일까지

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90% 군

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

민으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 하다.

완주군이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

3,560명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했

는 문화배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일

로 주목받았다.

다"고 밝혔다.

완주군, 대학생 천원아침밥 '2학기도 책임진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복지 상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담소는 22일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기관 상호 협력 구축 을 위해 남원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것으로 통역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활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법

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 을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신선한 농산물을 기부하고자 하는 농

가를 적극 발굴 연계해, 사업에 힘을

군은 상반기 동안 진행된 사업을 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해 하반기에도 도시락

의 품질을 유지하고, 현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등 사업을 더욱

/완주=김명곤기자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적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이주여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

여성가족과 김미옥과장은 "앞으로 이번 협약식은 남원 지역 내 증가하 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연계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원발 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굴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YWCA상담소, 가족센터와 이주여성 보호 협약 완주군,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MOU)을 체결했다.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장신화 소장은 "언어와 문화

순창군, '전북 로컬 트래블 마켓'서 지역 관광 매력 알려

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앞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에 이어 진 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완주군 월 30일까지다.

행되는 이번 2차 지급은 군민 생활 안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과 일

정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

가 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읍 했다.

도·군산시공동주최박람회참여 장류축제소개·특산물시식등진행

순창군이 지역 고유의 매력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트래블 마켓'에 참가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 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 지역 관광 박람회로, 도내 각 시·군이 한자 리에 모여 고유의 관광 지원과 축제를 소개하고, 관광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 로 마련됐다.

순창군은 대표 관광콘텐츠인 '순창장 류축제'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와 체험 고추장을 활용한 시식 및 체험 행사를 함께 운영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풍 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제



순창군이 지역 고유의 매력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 치도 로컬 트래블 마켓'에 참가했다. <사진=순창군>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공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보고, 맛보고, 관광 매력을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할 체험할 수 있는 오감형 콘텐츠를 중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으로 구성되어, 순창의 관광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 팅으로 순창을 찾는 발길을 늘려가겠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순창의 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이승원)남원김종관 지국장 등 조합 와 자부심으로 ebts 신주유천하 앱 원 40명은 지난 19일 8대명산인 대구 을 전국에 홍보하며 배려를 실천하는 팔공산에 위치한 ebts 교육센터을 찾 배달주유을 하는 국민기업으로 26년 아 우거진 잡초제거와 팔공산 주변에 대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국토대청결 을 하였으며 팔공산 정상을 향한 등 스를 위해 APEC 경주정상회의에 앞 산이 이뤄졌다.

한국땅'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70~80 대 시니어들이 독도사랑플래시몹을 라사랑 독도사랑을 전국민운동으로 획이다.

소셜벤처기업 ebts협동조합(회장 승화시키며 홍보에도 앞장서는 긍지 상반기까지 3,000개의 독도사랑주유 소를 확보해 따뜻한 기름 배달 서비 서 경주독도사랑휴게소에 독도조형 정상에서 노인환조합원의 '독도는 물과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독도를사 랑하는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남 원에도 지리산연수원을 설치하여 호 멋지게 선보였다. 애국기업 ebts는 나 남지역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 /남원=정하복기자

완주군, '진드기 감염병' 예방 당부 벌초·성묘전 '긴옷·기피제' 필수

완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벌초 등 야 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 소증후군(SFTS), 쪼쪼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풀숲이나 산 림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 열·피로감·소화기 증상·피부 발진 등을 동 반할 수 있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벌초, 성묘 시 긴팔, 긴 바지, 모자, 양 말 등 보호구 착용하기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않기 △작업 또는 성묘 전후 기피제 사 용하기스 2주 이내 증상발생 시 즉시 의료 기관 방문하기 등이 있다.

유미숙 보건관리과장은 "추석 명절 성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진드기 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은 실천이 군민의 건 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오는 24일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가 오는 24일 무주군 무주읍 무주장애인노인종합 복지관(실내)과 무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실외)에서 개최된다.

무주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 기업협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하 는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공하 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한국자동차모빌 리티산업협체 등 자동차 및 가전 기업을 비 롯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비자 보 호 및 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으로, 무주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 상담, 건강음료 제공 및 건강진단, 고령자 대상 장수 사진 촬영 등 을 실시하며 소형가전(휴대폰, 밥솥 등) 무 상점검 및 폐가전도 수거한다.

실외 행사장인 무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에서는 주요 자동차 기업에서 진행하는 무 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 에서는 자동차용 석유(휘발유·경유)의 진 위를 가리는 검사도 진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대형가전 및 보일러 무상 방문 점검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야시장' 개최

장수군은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장수 한누리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장수 청년 야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청년협의체가 주최. 주관하며, 청년들의 창의적 기획을 바탕으 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 공연 프로 그램을 준비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야간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축하공연에는 힙합, 밴드, 댄스팀 등이 올 라 젊은 감각이 살아 있는 무대를 선보이 며 젊은 감각과 활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 노래자랑이 진행돼 참가자들 이 끼와 열정을 뽐내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장수사랑상품권과 푸짐한 상품이 수여된 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추억의 오락기, 다 트·인형뽑기 등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 는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푸드트럭 존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늘려 총 8대가 참여하며 닭꼬치, 타코야끼, 분짜, 스테이크, 츄러스, 빙수 등 다양한 메뉴로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푸드트럭 이용객과 체험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 이 진행되어 장수군 특산품과 지역 상점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진안군은 2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정책을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 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민 과 국회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이틀간 1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군은 우수 입법·정책 부스를 설치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 진안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진안고원 촌 스런 마을여행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 △민 생안정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활성화 등 민생경 제 활성화 정책을 집중 소개한다.

이번 부스 운영을 통해 군의 입지를 점검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번 주 열리는 '2025 진안홍삼 축제'를 함께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선정

5년간총사업비 100억투입 스마트축산지구 융복합지구조성

박희승 국회의원(남원 · 장수 · 임 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표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 공간정비사업에 전북 장수군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촌 활성화와 특 대된다. 산품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향후 5

다 . 재원은 국비 50 억 원 , 도비 15 억 원, 군비 35억 원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축산지구 지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 장수 IC 인근 농 촌융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특산품 가 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 공·체험·판매를 아우르는 관광 거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

사업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 계획 수

년간 총 100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29 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선정은 장수군이 미 장수군은 △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래 농촌 발전을 위해 구상해온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특히 최훈식 장 수군수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속적 준 로도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정책적 뒷받 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상가' 준공

총사업비 50억 투입 연면적 796㎡ 지상 1층 규모

임실군이 지난 19일 임실전통시장 맛 잇길 음식상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양주영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박정규 도의원, 지역사회단체장, 임실시장 상 인회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음식상가는 국비 및 도비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연면 적 796㎡의 지상 1층 규모로, 음식점 6 개소, 공영화장실, 옥상주차장 15면으 로 구성됐다.

그동안 치즈테마파크나 옥정호 등 임 실군을 내방하는 관광객의 증가나 35 사단 군 장병들의 일몰 휴가제로 소비 성향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을 수 있는 치즈스모크 바베큐(세모네



진안군은 4일 오후 진안역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과 국보순회 <사진=진안군> 전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를 완료했다.

입점 품목으로는 임실 대표 상품인 치즈(유제품)와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 거트 숙성 숯불구이(요돼지), 운암면에 있는 붕어섬을 형상화한 임실치즈 붕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 어빵(붕어섬 붕어빵), 간편하게 데워먹

2023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6월 공사 모), 흑염소탕(임실흑염소탕 원조집), 한우 시래기육개장(덕자네), 임실치즈 만두(임실식당) 총 6개이다.

군은 이번 음식상가 조성이 임실시장 및 인근 상점가와의 상생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주계고성 발굴 성과 현장 공개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무주 '주계고성(약 840m, 삼국~조선 시대)'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가 22일 2 회에 걸쳐 무주읍 대차리 산 52번지 일 원에서 진행됐다. 지역주민과 학생, 공 무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오는 30일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2024년부터 진행 해 온 '주계고성' 발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발굴조사 성과 설명과 출 토 유물 관람, 조사 현장 견학 등의 순 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계고성'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재)고 고문화유산연구원에 조사 용역을 의뢰 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성곽(남성벽, 북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 19일부터 며 역사적 실체가 드러났다. 6월 25일까지는 남성벽에 대한 발굴 조

벽 내외부에 대한 3차 발굴조사를 진행

문헌에 따르면 '주계고성'은 백제와 신라가 맞닿은 국경 보루이자 지역의 됐다.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치소성으로 기록 된 곳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성곽의 구 벽), 집수시설 추정지에 대한 1차 시굴 조와 축성 기법, 내부 시설 등이 확인되

사, 서성벽과 내부 평탄지에 대한 시굴 편이 출토되어 주계고성의 축조 및 운 조사가 진행됐다. 8월 27일부터는 서성 영 시기가 삼국시대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성벽에서는 외성벽 축조 방식 과 보축 시설이, 서성벽에서는 내·외성 벽과 회곽도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

무주군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추가 발굴 조사를 이어갈 계획 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지와 성곽 주요시설에 대한 규명, 성곽 축조 주체 또한 유물은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 를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에 큰 기 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춘성 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부회장 선출

제15차정기총회서선출안가결

전춘성 진안군수가 전국농어촌지 역군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22 일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춘성 진 안군수의 부회장 선출안건을 가결 했다.

지역 군수협의회는 전국 76개 지자 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 정책포럼과 중앙부처와의 간담 회,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농어촌지 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 해 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건 다. 의사항 및 지역상생 직판행사 추진



논의, 송미령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 회 등 농산어촌 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

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금 농산어 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단순한 지 지난 2012년 출범한 전국 농어촌 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 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인 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매년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해결책 마련 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농산어촌지역 군수 님들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날 회의에는 34개 군 단체장과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인구・관광・복지 현안 집중 질의

5분 발언·군정질문 실시

임실군의회가 인구소멸 위기, 관광 정책 성과 검증, 복지현안 등 군정 핵 다. 그는 관광객 유치 실적, 지역경제 심 과제를 놓고 집행부에 잇따라 목소 리를 높였다.

2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 서 양주영 부의장, 김정흠 의원, 김왕 중 의원은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통 해 구체적인 대안과 비판을 제시했다.

양주영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 해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 임실군이 직면 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 들고,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 당진시 의 산업단지·기업 유치 성공사례를 언 급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기획 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맞춤 형 인력 양성, 기업-지역 상생체계 구 이 없다"고 지적했다. 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 핵심 시책인 '명품 관광벨트 구축' 사업에 최근 5년간 1,822억 원이 투입 지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된 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많은 예산

을 투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수치로 입 증되지 못한다면 군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 파급효과 등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 TF 구성과 범군민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공모 대응 전략"을 촉구했

김왕중 의원은 시간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연간 1억6 천만 원이면 가능한 처우개선을 예산 부족 탓으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의지 부족"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장미축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는 "차별성 부족, 재정지출 우선순위 문제, 공직자 업무 과중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 며 "이미 사계절 대형 축제를 운영 중 인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는 실익

본회의장에서 나온 세 의원의 지적 군정질문에서 김정흠 의원은 민선8 과 제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군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임실=한병열 기자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장수사과품평회 성료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와 더불어 관람객들의 의견이 반영되 4일간 열린 '장수사과 품평회'를 성황 며, 장수사과의 탁월한 맛과 품질을 다 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장수지역에서 재 배된 홍로사과 100품을 대상으로 현 이광원 농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장평가, 당도평가, 전문가평가, 관람객 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장수읍 용 시식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상 부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차 장수사과농원 정교문 농가, 장려상은 상까지 다양한 부문별 우수 사과를 선 황소같은농장 문명성 농가가 각각 차 정했다.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 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 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상은 장수읍 개정리 광원농장의 계리 채령이네 류계열 농가, 우수상은 지했고, 이어 아차상은 다온농장 김민 품평회는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수 농가와 평강농장 김성휘 농가가 수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자활기업 알파임실점, 이전 개소식 개최

임실군 자활기업 알파임실점이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광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구 임실군 식을 개최했다.

규 전북도의회 의원, 김왕중 임실군의 유재산지원처장 등 지역 및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알파임실점의 새로 운 시작을 축하했다.

국유재산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 로 조성할 예정이다. 간으로 전환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북특별자치도, 전북광역자활센터 간 '유휴 국유재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이전 개소 한 이후 임실군에서는 자활기업 알파 임실점이 대상지로 선정돼 리모델링 이번 행사에는 이진관 부군수, 박정 을 진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모델링 지원 회 의원, 신진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 과 대부계약을, 전북광역자활센터는 4 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새롭게 이전한 알파임실점 1층은 문 구류 판매 및 아동 급식, 영양플러스 알파임실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등 유통 사업 공간으로 활용되며, 2층 서 추진하는 유휴 국유건물 활용'나라 은 향후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자활생 On'사업의 9호점으로, 활용되지 않던 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공간으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23일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선불카드 지급

진안군이 2025년 농민 공익수당을 23일부터 7,274명에게 총 32억원(도비 40%, 군비60%) 규모의 농민수당 지급 을 시작한다.

가구 단위에서 농업인 단위로 개편되 30일까지이다. 어 지급 대상자는 7,274명, 경영체 수는 5,457명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신청연도 기준 기 불카드로 지급된다. 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

건으로 완화되어 지난해 지급 규모인 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5,269농가보다 대상자가 늘어났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23 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올해부터는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9월 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진안군 관내 카드 가맹점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 과 전주 호성동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조 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업, 전

>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기능과 형상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

한편, 진안군에서는 지난 7월 민선 8 지급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 기 공약사업으로 농민 공익수당 보전 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이며 무기명 선 을 위해 군 직불금을 5,258농가에 농가 당 3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 출신 다고내푸드 김강용 대표, 추석선물세트 100개 기탁

다고내푸드 김강용 대표가 고창군청을 찾아 추석선물세트 100개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서 다고내푸드는 추석선물세 트 1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고, 전북공 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 달될 예정이다.

김강용 대표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출신으 로 현재 익산에서 소스전문 제조기업을 운영 하고 있다, 김강용 대표는 매년 고창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이웃돕기성금 기탁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탁식에 참여한 김강용 대표는 "고창에서 나고 자람으로서 고향에 보탬이 되고싶은 마 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영화관서 영화 '좀비딸' 단체 관람

무주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580명 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 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와 무 주반딧불시니어클럽(관장 김도현)이 함께 지 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문 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마 련됐다.

5일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580명이 참여 해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최근 개봉작인 한국영 화 '좀비딸'을 관람했다.

김 모 어르신(79세, 무주읍) "영화관이 있어 도 개인적으로는 시간 내서 오기가 망설여졌 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젊을 때 생각도 나고 좋더라"며 "이렇게 길을 텄으니 어울려서 자주 와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한 모 어르신(85세, 적상면)은 "일도 하고 영 화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웃는 일도 많아지고 말도 많이 하게 되니까 생활에 활력 이 생기는 걸 느낀다"라며 "이런 기회가 앞으 로도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농협중앙회장수출신임직원, 2천만원기탁

누적 4천만원 넘어

19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현장 에서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장수 출신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 사랑기부금 2천5만 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지주 경제지원부장, 장길환 NH 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 정영선 적 지원을 넘어 농업·농촌 가치공 경영감사국장, 김준오 영업채널전 감과 참여의 모범사례로 평가된 략국장, 이용기 ESG전략팀장 등 다. 역대 장수군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장수 출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는 지난 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장수 출 신 농협 임직원들이 장수군에 기 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4천85 만 원에 달한다.

이번 활동은 장수와의 끈끈한 연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농산 이번 기탁식에는 허용준 농협경 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 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

/장수=최진수 기자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 정읍시에 1천만원 기부

"고향 학생들 응원합니다"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가 지난 19 다. 일 고향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과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 하며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안정남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발전 과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고화답했다. 정읍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 꾸러

미를 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

안정남 대표는 "고향 학생들이 꿈 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 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안정남 대표의 따 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에 감사 드리며,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학생 들의 꿈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송광사,송광백련나비채음악회성황

지 법진스님)가 지난 20일 송광사 나눴다. 일원에서 2025년 송광백련 나비 채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는 '나·비·채' 정신은 '자비를 나누 테너 이희상이 무대에 올라 풍성 고, 욕심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 이 한 무대를 선사했다. 웃과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비를 나누고, 욕심을 비우며, 다시 함께 사찰음식 만찬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미를 강조했다. 와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도 참석

대한불교조계종 완주 송광사(주 해 지역 주민들과 축제의 의미를

공연은 송광사 경내에서 펼쳐졌 으며, 오케스트라 코리아쿱의 연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 주와 피아니스트 송영민, 카운터

> 송광사 법진스님은 "지혜와 자 지혜와 자비로 채워가는 것이 행 복의 삶"이라며 나비채 정신의 의



전주시복지재단, '추석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행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지역 터에 배부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이 가득 담긴 한가위 꾸러미가 제공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 은 2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명규 전 들의 생산 제품도 일부 포함돼 의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주 미를 더했다.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전석진)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석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필품 꾸러미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400개의 온정 나눔 꾸러미는 곰 탕과 김, 참기름, 각티슈, 보습크림 등 14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경

3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 원들은 정성으로 포장한 꾸러미를 각 동에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 층 대상자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정혜민 기자

산불 예방 수칙



부안군 산림조합, 취약계층에 150만원 상당 현물 기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22일 다 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정)에 150만원 상 당의 현물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 천했다.

이번 기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소외계 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안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기탁 물품을 활용해 독거어르 신 및 장애인 등 15가구를 선정, 과일과 국거 리 재료 등을 담은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마련해 오는 10월 2일 직접 방문·전달 할 예정이다.

오세준 조합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안군 산림조 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 을 살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 익산 춘포면에 백미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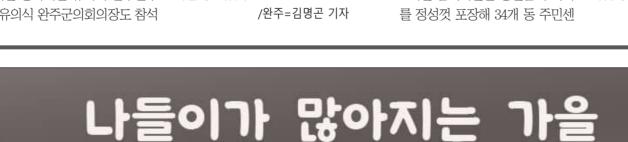
명절을 앞두고 익산시 춘포면에 이웃을 위 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 춘포면에 위치한 (유)두드림 농업회사 법인(대표 박도영)은 22일 춘포면 행정복지센 터를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 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선별·판매하며, 매 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발 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도영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 으로도 춘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곽경원 춘포면장은 "(유)두드림 농업회시법 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 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어미서나 제필 사항를



산 초일부터 정상까지,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 안내 준수



소지 금지



흡연 금지

〈一事一言〉



김건희가 살았던 '타인의 삶'(2)

송요훈

전 MBC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 년이 조금 지난 2023년 9월, 〈오 마이뉴스〉에는 '고등학생이 손꼽 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 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통령 윤석열에겐 잘못한 게 전부이지 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업적이 있을 것이니 그걸 한번 찾 아보자는 반어법의 기사였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란 걸 몸소 보여준 거 라며,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 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니 서울 법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고,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 이 얄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 사회 적 약자와 정적을 괴롭히는 자들 이라는 '법꾸라지의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의 공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 고 했단다.

지금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건, 기성세대가 서울대 법대를 나 오고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최고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 준 결과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들 의 진단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 째의 통찰에선 고등학생들의 예 리한 통찰에 박장대소하였으나 민주주의의 취약함과 어른들의 '묻지마 투표'를 간파한 세 번째 와 네 번째에선 몹시 부끄러워 얼 굴이 화끈거렸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꾼 김건희

▲ 오늘의시

는 '타인의 삶'을 살기만 한 건 아 니었다. V0 김건희는 V1 윤석열 을 조종하여 법 위에 군림하며 특 권과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타 인'들의 행태를 가감 없이 투명하 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일반 대중 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테면 이런 거다.

윤석열은 사실상 여론 조작을 통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 우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 고 기득권 정당에선 여전히 공천 을 사고판다는 걸 보여주었다. 정 치와 종교가 헌법으로 분리된 나 라인데, 윤석열이 당선된 그 대선 에선 무속신앙만이 아니라 통일 교와 신천지와 대형교회가 선거 에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국 가조찬기도회라는 근사한 간판 뒤에선 뇌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하고 이권에도 개입하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다.

>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금거북이만 뇌물인가. 자리만 주 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충 성 맹세가 있었다면 그 또한 무형 의 뇌물이 아니겠는가. 부정부패 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는 것이 설립의 목적인 국민 권익위원회가 김건희의 디올백 에 면죄부를 발부한 행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위원장이 임명권 자인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이 고 절친이라서 그랬을까?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막 아야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인 권위원회에 차별주의자를 임명 한 이유를 또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방통위원장에 극 우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이유를, 독립을 기념해야 할 독립기념관 장에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인물 을 임명한 이유를, 충성 맹세라는 무형의 뇌물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열거하다 보면 숨이 찰 정도인 데, 새벽까지 술에 찌들어 있었다 는 대통령 윤석열에게선 그 모든 걸 챙겼을 부지런함을 찾아볼 수 없으니 자기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흉내 내던 'VO 김건희'를 빼 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죄가 태산 같아서 몇 삽을 퍼서 V1에 게 떠넘긴다 하여 한강에서 물 한 컵을 뜬 것만큼이나 줄어든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건희에게 과(過)만 있는 건 아 니다. 따지고 보면 공(功)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윤석열 치하의 검찰은 '친윤' 아 닌 사람들에겐 무시무시한 저승 사자였으나 김건희에겐 꼬리를 살살 흔드는 애완견이었는지라 양심이 있는 검사라면 검찰의 수 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 었으니 그건 순전히 김건희의 공 (功)이다. 탐관오리들이 득세하던 가렴주구의 시대에나 있었던 매 관매직이 기득권 계층에선 아직 도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었느니 그 또한 김건희의 공(功)이다.

공부 잘하고 많이 배워 높은 자 리에 오른 자들의 부도덕하고 몰 양심에 몰염치한 얼굴을 보게 되 었고, 뭐니 뭐니 해도 고등학생들 도 간과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취 약하다는 걸 알게 해주었으니 그 보다 더 큰 공(功)이 있겠는가.

타인의 삶을 감시하다 정의로 운 삶에 감화된 영화 속의 비밀경 찰은 지위를 잃었지만 인간의 얼 굴을 되찾았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경력을 세탁하여 타인의 삶을 살았던 김건희는 철창에 간 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타 인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죽으 면 남편이 살길이 열릴까' 하며 열녀가 되더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며 직녀가 되었다가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하며 철 지난 유행가 읊어대는 삼류시인이 되기도 한

철창에 갇힌 김건희가 그러거 나 말거나 관심 둘 일은 아니다 만, 고등학생들도 간파했던 것처 럼 어른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나 라가 '요 모양 요 꼴'이었다는 걸 그 어른들이 깨닫고 각성하게 된 다면, 그 또한 '타인의 삶'을 흉내 내던 김건희 덕분이니 나중에 판 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김건희의 형량을 감해주는 작량감경의 사 유로 삼더라도 나는 그 판사를 탓 하지 않을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미 관세 협상에 전북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돼야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상식을 벗어 난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난항을 겪으며 전북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도 점 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 업 보호를 내세워 한국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협상 타결 과 정에서 도내 자동차·조선·농식품 등 주 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전북 수출기업들에게 결 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무대다. 따라 서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 일방적인 양 보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도민들의 삶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최근 유관 기관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원과 판로 확 대,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 등 올해 시행 된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으로 공급망 다각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특히 미래 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같은 산 업 구조 고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이 자동차, 조선, 농식품이 라는 전통 주력산업에만 매달려서는 예 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장 다변화와 신산업 발굴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도 한 계는 분명 존재한다. 관세 협상은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밀 착 지원하는 일이다. 전북도가 수출바우 처 확대, 긴급 금융지원, 해외 전시회 참 가 지원 등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 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지 역 경제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 과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리한 관세 인상안을 수 용하는 순간,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 일자리는 위협받는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 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 을 구축하는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 은 전북의 경우, 단기적 금융지원보다 장기적 구조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이 다. 전북의 대응반 활동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특례보증·비 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실제 기업에 당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 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언제까지 이 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세 율 몇 퍼센트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 역 경제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 이다.

전북의 수출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 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 있 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하 지 않도록 국가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암사 안마당에는 스님 모시고 노는 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귀가 하도 맑고 깨끗해서 뒷산 다람쥐 도토리 굴리는 소리까지 훠히 다 듣습니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 국어국문학과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 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85년 이리중학교

화암사, 깨끗한 개 두 마리 / 안도현 간혹 귀 쫑긋 세우고 쌩 하니 달려갔다가

> 소득 없이 터덜터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귓전에 닿는 소리에

덕지덕지 욕심 있어서가 아닙니다

국어교사를 하다 전교조에 참여해 해임됐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창과 교수를 하

그저 그냥 한번 그래 본 것입니다 바람이, 일없이 풍경소리를 내는 물고기 꼬

그저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듯이

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우석대 를 떠나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자리를 옮겼고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 예천으로 돌아



선운사영산전목조삼존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소재지- 고창군 선운사로 250 (아산면)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시대 - 조선시대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 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년도전 제원내업

민생에 온기, 성장에 활력

정읍'상생모델'주목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일자리지원센터·청년지원센터 운영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민 중심의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달려온 민선 8기 정 읍시가 이제는 시민의 삶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체감 형 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투자'라 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3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혁신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제는 일자리, 민생경제, 에너지 복지, 도시 인프라 등 시민의 삶 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을 넘어, 공급과 수요를 잇는 일 자리 매칭,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미래 100 년을 내다보는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정책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읍형 선순환 발전 모델' 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 중심의 촘촘한 그물망, 일자리부터 소상공인까지

정읍시 민생 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시는 물가상 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버 팀목이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 청사진이다. 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 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 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모를 지난해보다 4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대폭 확 것이다. 정읍시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까지 전 주 대했다.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개인별 구매 및 보유 한 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를 유 도(월 100만원, 보유 200만원)를 늘리는 등 시민들이 즉 기적으로 연계해 36개의 초기 창업기업이 입주해 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심리 회 있고, 전문투자사 중심의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 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여기에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배달비 할인, 페이백, 소비쿠폰 지급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시민 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인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경영난을 파크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지원 거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 매출 1억원 선스'를 통해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투자유치까지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4000명에게 50만원씩, 총 20억원 을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했다.

일자리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맞 춤형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정읍시 일 는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3개년에 걸쳐 자리창출위원회'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자리 컨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급배 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 기업 (294개)과 구직자(2790명)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걸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시와 공급 축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완화했다.

통해 올 상반기에만 124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대된다. 성과를 거뒀다.

해졌다.

넓고 쾌적한 소통·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대 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취업의 문턱을 넘는 청년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최대 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본격 추진해 문화·복지 증진과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까지 시행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은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마중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래를 여는 담대한 설계, 신산업 육성과 균형 잡힌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다

정읍시는 현재의 민생을 돌보는 동시에,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성장 동 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구 지정과 체 계적인 기업 지원 모델 구축,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인프라 확 충이 바로 그것이다.

정읍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전략은 '선택 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6월 바이오 및 동물의약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올해 2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은 기업 유치의 기폭제가 됐다.

이를 통해 이미 1개의 앵커기업과 7개의 협 력기업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정동과 입암면 일 원에 3476억원을 투입해 약 56만 평 규모의 'RE100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섰 다. 이는 지역 특화 자원인 첨단 바이오, 방사선 기술을 정부의 RE100 정책과 결합해 글로벌 수 준의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 기를 아우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특히, 추석 명절과 맞물린 9월부터는 상품권 할인율을 구축했다. 기업의 입주·창업 공간 부족을 해소하 해 올해 상반기 9개 기업을 발굴·유치했다.

> 또 성장기 기업을 위한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40실)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60실, 2029년 입주 목표) 등 임대형 창업 공간 100실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본부, 테크노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1기업 1공무 원 전담제'의 높은 애로사항 처리율(87%)과 함께 '기 업하기 좋은 도시'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로 입증 되고 있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읍시 관과 인입배관 공사를 효율적으로 전환해 15년 이상 사가 비용을 분담해 주민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연 이를 통해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을 료비 절감과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도시의 균형발전 또한 정읍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고 세심 야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 11 월 △미디어 교육과 창작 공간인 '메이플플랫폼' △역사 지난 3월 수성동으로 확대 이전한 '청년지원센터'는 와 휴식이 공존하는 '작은 역사공원' △소규모 공연장과 음악도서관을 갖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준공으로 마 학 미진학 청년 구직지원금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 무리되면, 쇠퇴했던 구도심은 새로운 문화·경제 활력의

동시에 농촌 지역에는 7개 면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월세 사업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6개 마을에 30억원을 투입하

/정읍=김정인 기자



